

'93 인터팩과 오사카팩

환경대응의 각종 포장기술 선배

35개국 2천여업체 인터팩 참가

세계 포장인들의 기대와 관심 속에 치루어졌던 'Inter Pack 93'은 명실공히 세계 최고의 포장전시회의 면모를 과시하고 그 대단원의 막을 내렸다.

지난 5월 6일부터 12일까지 독일의 뒤셀도르프에서 개최된 이번 박람회는 주최국 독일에 비롯하여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일본, 미국 등 35개국 2천여 업체가 참가해 각 회사의 제품을 홍보하고 포장산업의 현황과 추세를 각종 출품작을 통해 확인시켜 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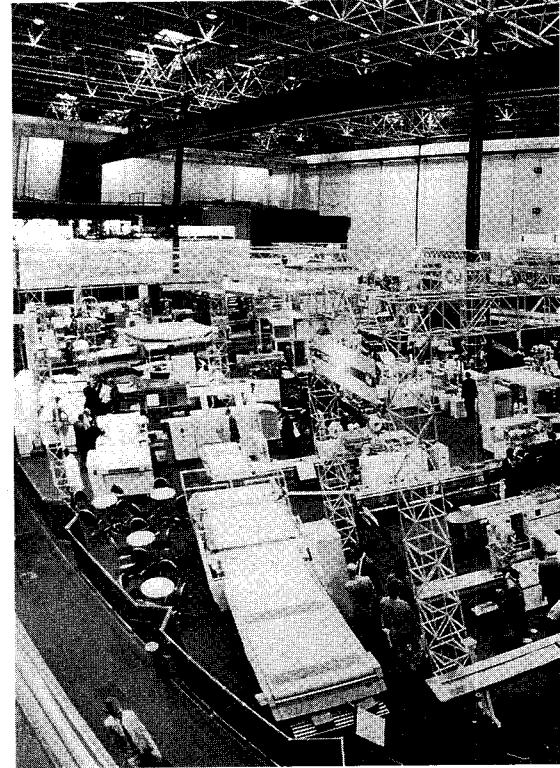
연면적 4만 여평의 뒤셀도르프 무역 전시장에서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열린 이번 행사에는 전체 참가 업체의 55% 가량이 외국업체들로 구성되어 이 전시회의 국제적 위상을 짐작케 하였다. 각국의 참가 현황을 보면 그동안 대규모로 참가해온 이탈리아 3백여 업체를 비롯해 영국 1백54개, 프랑스 1백18개사가 참여하였고, 유럽의 지역에서는 미국 61개, 일본 26개 그리고 대만에서도 25개 업체가 참가했다.

국내업체로 유일하게 (주)서일이

전시에 참여했는데 총 20건 1백50만 달러 상당의 상담실적을 거둔 것으로 밝혀졌다. 서일은 이번 전시회에 신개발품인 스트로 어플리케이션 '시그마 500'과 각종 스트로를 출품해 호평을 받았다.

국내 참관단은 여행사를 통한 참관단과 개별 참관단을 합쳐 4백~5백여 명 정도로 추산돼 인터팩에 대한 포장업계의 높은 관심을 입증했다.

더욱이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



의 지원책이 발표된 뒤 이뤄진 전시회 참관이어서인지 설비 및 신규투자를 염두에 둔 국내 포장업계의 관심은 여





는 때와 달리 뜨거워 실무진급 관람자들이 많았다.

환경 친화적인 포장의 개발이 업계 최대 관심사가 되고 있는 세계적 추세에 따라 이번 전시회는 환경과 관련한 각종 신소재, 기술소개에 중점을 두었다.

플라스틱 필름 등 환경공해 물질의 사용을 최대한 억제하려는 추세가 참가업체 대부분의 출품 품목에서 나타났고 출품된 플라스틱 제품의 경우 재활용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연구개발도 활발이 전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제과·식품 포장재와 용기 등 환경오염을 고려한 소재가 대거 선보였으며, 이와 관련된 기계의 출품도 눈에 띄었다.

포장기계 자동화 추세 확인

이번 전시회의 또다른 특징은 출품된 포장기계류에서 첨단 자동화가 정착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모든 기계류에 컴퓨터가 부착돼 있어 적어도 사람 손을 거치는 시스템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 참관인들의 공통된 견해였다.

더욱이 인쇄기술은 국내에 미처 소개되지 않은 각종 설비 시스템을 비롯해 다양성과 선명도가 뛰어난 고도의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제품들이 선보여 참관인들의 주목을 끌었다.

특히 국내업체의 제과류 트위스트 묶음 포장에 주로 쓰여온 셀로판 대신 PP를 재질로 한 새로운 소재가 선보였다. 현재까지 PP재질로 묶음 포장을 할

경우 퍼지는 단점이 있어 국내 업체가 이를 개발하는데 실패해온 게 사실이라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셀로판 대신 PP재질을 쓸 경우 원료가 풍부해 전량 대체가 가능할 뿐 아니라 외화절감에 한몫하리라는 기대섞인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또한 참관단은 주최측 주선으로 둘러본 필름압축기 생산업체인 키펠(KIEFEL)사를 견학하고 국내에 보급된 보소·3Layer기를 비롯 최근에 개발한 5Layer기를 둘러보기도 했다.

키펠사는 연간 7천만 마르크의 매출액을 기록하는 회사로 독일에서는 가장 큰 필름 압축기 생산업체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본 전시회와 별도로 환경문제와 관련해 3가지 부대행사가 열리기도 했는데 먼저 7일 오전에는 '포장과 환경'이란 주제로 국제 심포지엄이 개최되었고, 여기서는 독일의 포장과 환경대책, 엔지니어링 부문의 포장산업 동향, 대체 포장재 개발, 포장 커뮤니케이션 등 각 부문별 워크숍을 통해 환경 친화적 포장에 관한 연구결과 및 신기술을 토대로 열띤 토론이 열리기도 했다. '우리의 미래는 안전한가'라는 타이틀로 특별 전시회도 열려 포장재의 재생·재활용 기술과 환경친화적 포장에 대한 정보와 신제품을 선보였다. 박람회장 이스트센터에서 열린 이 특별전시회는 관련업계의 전문 참관단은 물론 일반 관람자들에게도 무료로 개방되기도 했다.

인터팩'93은 세계 포장산업계에 희망적인 지표를 제시했다고 여겨진다. 106개국에서 182,000여명의 참관인들이 방문, 지난해보다 약간 증가하는 모

습을 보였을 뿐아니라 올해의 인터팍은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를 올렸다.

전시장 방문객들은 출품내용의 높은 수준과 국제성에 특히 만족을 표했고,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박람회 기간 중 체결된 계약과 상담 건수를 볼 때 박람회 이후에도 활발한 거래가 지속될 것이 틀림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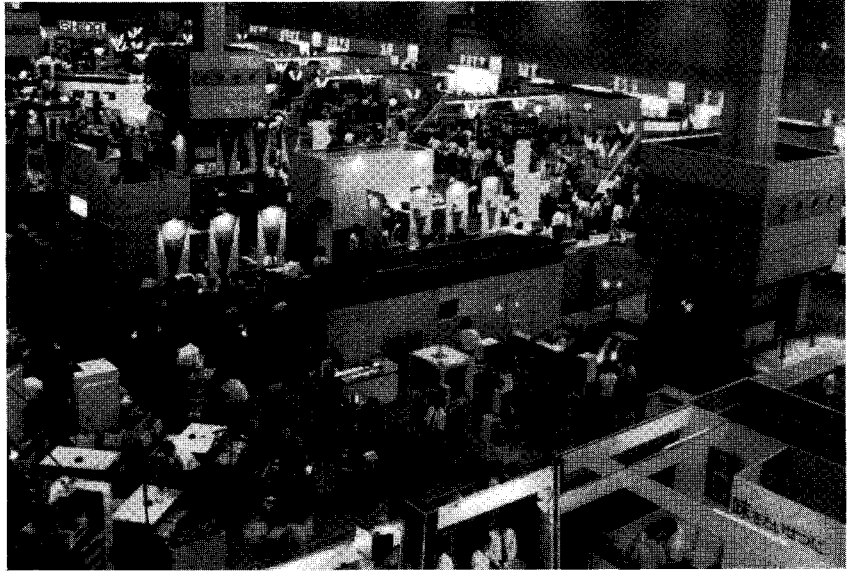
전시회에 참관한 국내 참관인들은 전시회의 양과 질에 대해 경탄을 표시하는 한편 국내 포장산업의 낙후성을 새삼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폐수지 유회환원시설 최대 관심

지난 6월 9일~12일에 (株)日報 주최로 오사카의 INDEX 전시장에서 '93 오사카팩'이 열렸다.

개막일은 마침 나루히토 왕세자의 결혼식이 치러진 날이기도 했는데, 임시 공휴일로 지정된 탓인지 오픈식 직후부터 참관객들이 몰려 들었다.

'포장-물류의 신기술과 재자원화'를 주제로 열린 오사카팩 기간 동안에 일본의 포장 관련업체 353개사가 참가해 1,600여 부스에서 포장·물류·산



업디자인에서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선보였다.

93 오사카팩의 주제가 말해주듯 출품 내용을 보면 환경대응 포장재 및 재자원 기술이 크게 눈에 띄었는데 환경친화성 포장재로 재생펄프몰드, 스티로폴을 용융·재생한 완충재, 공기충전식 PE튜브 등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재자원화 측면에서 가장 관심을 끈 것은 옥의 전시장에 마련됐던 쿠라타사의 '폐기물 유회환원시설'이었다. 이 회사 부설기관인 '일본이화학연구소'에서 개발해 오사카팩을 통해 첫선을 보인 이 폐기물 재활용시설은 플라스틱 등 폐기물을 기름으로 만들어 자동차 동력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획기적인 아이템으로 많은 참관객들의 관심을 끌었다.

쿠라타사에 따르면 하루에 경유 25톤을 생산할 수 있는 이 폐기물 재자원설비의 가격은 약 150억엔으로 현재 7개사로부터 주문 제작중이라고 한다.

한편 식품포장 관련 출품이 가장 많았는데 특히 다양한 형태의 우드락 용기와 독창적인 패키지 디자인들이 돋보였다.

포장기계는 두드러진 신제품이 눈에 띄지 않았지만 콤팩트화·성력화한 기계들이 선보여 인력문제와 공간사용의 효율성, 사용 편리성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전반적으로 93 오사카팩 기간에 포장기계, 포장가공기계, 지기, 물류기기, 외장기계·자재, 포장자재 등 포장과 물류를 망라한 많은 제품들이 전시되었지만 국내의 포장업계 참관인들은 대체로 이미 알고 있는 수준의 박람회 내용이었던 지적이 많았다. ▣

